

산동성 공항 현황 및 계획

2015.5.25(월), 주칭다오총영사관

- ◇ 산동성은 중국 국내는 물론, 동북아 교통허브 구축을 목적으로 각 지급시에 여러 개의 신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공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1 공항 현황

- (현황) 산동성은 2014.12.30 기준 총 8개* 지역에서 민용(民用) 공항이 운행되고 있으며, 제12차 신공항 건설 5개년 계획(2011-2015)에 따라 청도·연대·일조·하택·요성시에 신공항이 건설될 계획임.

* 산동성 8대 민용 공항:

청도시 青島流亭机场, 제남시 濟南遙墙机场, 임기시 臨沂沭埠岭机场, 연대시 烟台莱山机场, 제녕시 濟宁曲阜机场, 동영시 東營永安机场, 유방시 潍坊南苑机场, 위해시 威海大水泊机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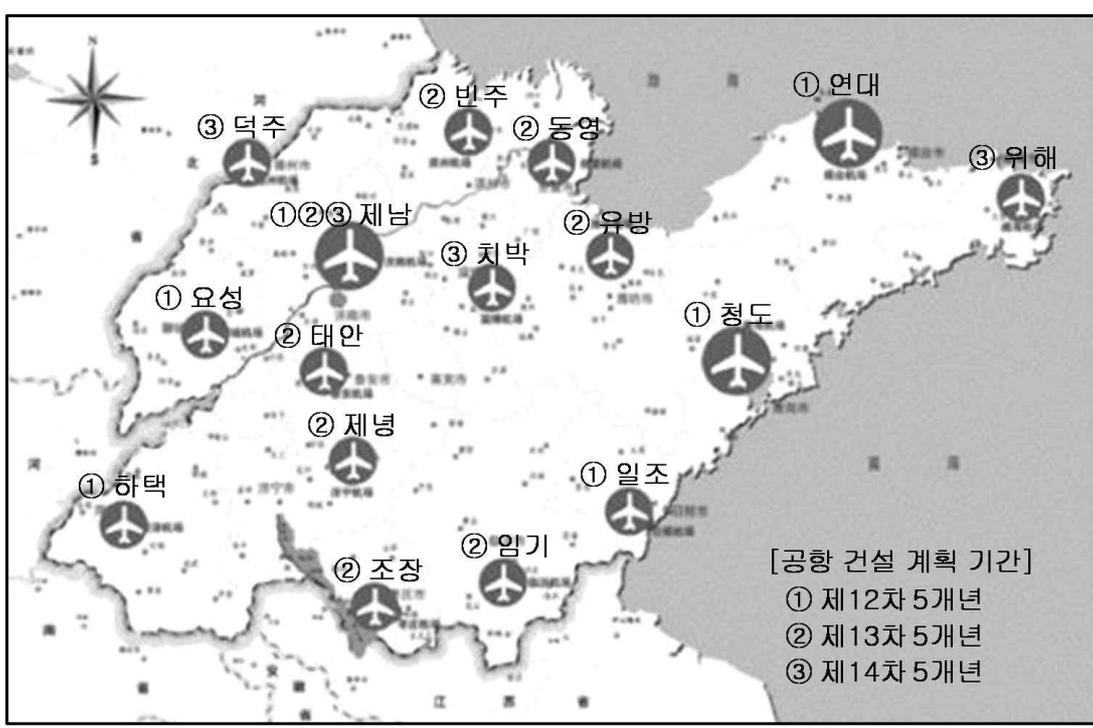
<산동성 공항 분포도>



2 | 신공항 건설 계획배경

- 중국정부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399개인 공항을 향후 15년 동안 1,600개로 늘리고, 해외 공항도 매입하여 국내외 항공망 건설을 추진할 예정
- 이에 따라, 산둥성정부는 2014.12 '민용공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에서 민용 항공업계가 그동안 대외개방 확대·산업구조 조정·역내 조화로운 발전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수요 증가 및 항공업 발전 촉진을 위해 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
 - 산둥성정부는 16개 지급시의 공항 건설을 통해 양질의 항공망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내 교통 허브는 물론 동북아 교류의 관문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예정

3 | 개발 기본구상 : 3간선(幹線) 13지선(支線)



<산둥성 공항건설 종합 계획>

□ (3간선) 성정부는 3간선인 청도·제남·연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국제 공항을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타 13개 지선이 연결된 항공교통망을 구축할 계획

□ (13지선) 성정부는 12차 5개년을 시작으로 14차 5개년까지 13개 지급시에 대한 공항 신·확충을 추진하여, 2030년 까지 모든 공정완료

<산동성 공항 건설 계획>

	단기 (12차 5개년)	중기 (13차 5개년)	장기 (14차 5개년)
확장	청도, 연대	유방, 제녕	위해
신설	일조, 요성, 하택	조장, 태안, 빈주	치박, 덕주
확충	제남	임기, 동영, 제남	제남

4 세부 사업 : 12차 5개년 신공항 건설 계획 중심

□ (계획)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정책에 따라 청도 신공항을 한국·일본 등으로 향하는 중국 항공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어 동북아의 주요 관문으로 발전시키고, 기타 지역과의 원활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13개 지역에 단계적으로 민용공항 건설을 추진

	청 도	연 대	일 조	요 성	하 택
명칭	청도교통 국제공항	연대봉래 국제공항	일조산자하 국제공항	요성軍民 合用공항	하택공항
착공시기	2015년	2009년	2013년	2012년	2015년
완공시기	2019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7년
투자액(위안)	300억	40억	13.4억	5.3억	12억
공항등급	4F	4E	4C	4C	4C
여객수송량 화물물동량	(2025년) 3,500만명 50만톤	(2020년) 1,000만명 15톤	(2025년) 90만명 4,500톤	(2020년) 26만명 -	(2020년) 100만명 4,500톤

* 공항등급 : 4C 활주로길이<1800m, 24m≤날개길이<36m
4E 활주로길이≥1800m, 52m≤날개길이<65m
4F 활주로길이≥1800m, 65m≤날개길이<80m (→중국내 최상등급)

가. 청도교동국제공항(靑島膠東國際機場)

- (최고 수준의 공항) 오는 9월 착공하여 2019년 완공될 예정인 바, 북경수도공항과 상해푸동국제공항 및 광둥백운국제공항 등과 같은 등급으로 건설 추진
- (최첨단 · 친환경) 상기 공항은 75대의 여객기를 동시에 기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최첨단 교통시스템을 접목할 예정이며, 열병합 발전과 태양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
- (다양한 특색 보유) 청도의 지역 · 문화 · 인문 특색 등을 살리면서 외형은 ‘불가사리’ 형태로 구상하여, 보다 더 예술적이고 상징성 있는 건물로 설계
- (한·일 상업센터 조성) 공항 단지 내 대규모 상업센터를 조성해 한국과 일본의 주요 상품을 수입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우수 상품을 제공할 계획
- (교통 ‘일체화’ 실현) 공항 이용시 보행 거리를 최소화하고자 버스 ·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을 적극 구축하고 최단 시간내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



참고

인천국제공항과 청도교동국제공항 비교

	항목	인천국제공항	청도교동국제공항
1단계 공사	착공시기	1992년	2015년
	완공시기	2001년	2019년
	투자액(원)	7조8천억	5조2천억
	여객터미널 면적(m ²)	51만	45만
	활주로 길이(m)	3,750	3,600
	활주로(본)	3	2
	여객 수송량(명/연)	2,700만	3,500만
	화물 물동량(톤/연)	170만	50만
	발착회수(회/연)	17만	30만
최종 공사	(예상) 시기	2020년 이후	2045년
	활주로(본)	5	4
	여객 수송량(명/연)	1억	6,000만
	화물 물동량(톤/연)	1,000만	100만
	발착회수(회/연)	74만	45만

나. 연대봉래국제공항(煙台蓬萊國際機場)

- (배경) 연대래산(萊山)공항이 군민(軍民) 공용 공항으로 1984.10월 건설된 이후, 국내 29개 지역 및 한국·일본 등 국제 노선을 운행하였으나, 군민 공용으로 인한 갈등과 연대지역의 항공 수요 증가로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 (일반개황) 연대봉래국제공항은 2009년 착공 이후 올해 5.28 정식 운행될 예정이며, 현재 연대래산공항의 민용 항공 관련 설비 등이 국제공항으로 이전되고 있는 가운데, 1기 공정이 마무리되는 해인 2020년에는 여객과 화물 수송이 각각 1,200만명 및 1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다. 일조산자하국제공항(日照山字河國際機場)

- (배경) 일조공항 설립은 2009년부터 언급된 프로젝트로 2013년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중국민항국과 산둥성이 공동 출자하여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경 여객과 화물 물동량이 각각 90만명 및 45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운행 계획) 상기 공항은 2015년 말부터 북경·상해·광저우·하얼빈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2016년에는 서울·제남·서안 등 7개 지역이 추가 운행될 계획

라. 요성군민합용공항(聊城軍民合用機場)

- (투자액 및 시기) 군민 공용 공항으로 총 투자금액은 5억위안으로 2012년 착공해 12차 5개년 신공항 건설 기획 기간내 완공될 예정
- (일반개황) 2020년 여객 수송은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 공항의 건설을 통해 요성의 경제 사회 발전이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마. 하택공항(荷澤機場)

- (일반개황) 하택공항은 민용공항으로 2015년 착공하여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2020년 여객 수송과 화물 물동량은 각각 100만명, 45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

5 종합평가

□ 한-산동성 인적교류 및 관광산업 활성화

- 산동성의 신공항 건설 계획은 지방도시로 확대되는 것 이외에도, 한국과 산동성의 지방도시와 교통접근성을 제고하여 인적 교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산동성 공항 건설에 대응하여 우리측도 산동성 지방도시와의 항로개설 등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준비 필요

□ 동북아 교통허브 경쟁 심화

-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교통허브 발전구상에 비추어 중국 칭도가 강력한 경쟁도시로 부상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산동성의 신공항 건설을 인천공항과 적절히 연계하여 상호 발전을 모색한다면, 양자간 Win-Win은 물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항공 부품 산업 육성 필요

- 신공항 확대 건설은 항공 수요 증대를 가져오며, 항공 부품 산업의 육성까지 확대될 전망
- 최근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내 항공 부품 산업을 중국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끝/